

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36호

발행인 : 김정태

발행일 : 2016년 12월 12일(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박근혜 끝장내는 투쟁 이제 진짜 시작이다!

최악의 대통령 박근혜, 탄핵당했다!

온 국민을 분노와 허탈감으로 몰아넣었던 국정농단-노동개악의 주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당했다. 탄핵소추안 찬반투표에는 300명의 국회의원 중 299명이 참가했고, 찬성 234명, 반대 56명, 무효 7명, 기권 2명으로 압도적으로 가결됐다. 재벌과 공조해 민중의 삶을 파탄낸 대통령을 결국 민중의 힘으로 탄핵했다. 이제 진짜 끝장을 내야한다.

촛불의 힘으로 해냈다!

한동안 탄핵안이 실제 가결될 수 있겠냐는 논란이 있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최소 28명 이상 탄핵안에 찬성해야 가결될 상황에서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의 입장이 우왕좌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구도 거대한 민중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었다. 박근혜를 탄핵시킨 것은 누가 뭐래도 매주 거리로 쏟아져 나온 촛불의 힘이었다.

10월 29일 2만명으로 시작한 촛불집회는 6차 집회에서는 전

국 232만명이 참가하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발전했다. 대전과 충청도 각 5만명, 1만5천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를 벌이며 투쟁에 힘을 실었다. 이 힘은 그대로 국회로 전해져 탄핵안이 압도적으로 가결되게 만들었다.

박근혜-재벌총수 구속해야 한다!

박근혜가 탄핵됐어도 박근혜 정권이 재벌과 뒷거래하며 추진했던 정책들은 아직도 그대로다.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추악한 유착관계는 아직도 그대로다. 이 사태의 주범인 재벌들은 피해자인양 행세하고 있다.

박근혜를 끝장내는 것은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게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재벌과 결탁해 민중의 삶을 파탄나게 했던 노동개악, 민영화 등 모든 정책을 끝장내야 한다. 박근혜와 재벌 총수들을 구속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만 또다른 박근혜가 나오지 않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그래야 촛불혁명의 진짜 완성이다.

지부 9기 2년차 사업계획 확정!

지부가 12월 5일 정기대대를 열었다. 총 112명의 대의원 중 81명이 참석한 가운데 1) 지부 조직통합력 강화, 2) 열사투쟁-투쟁사업장 승리, 3) 2017년 임단투 승리를 목표로 하는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지부는 2년차에는 권역별 확대간부 간담회를 통해 지부-지회, 지회-지회 간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확대간부 수련회를 개최해 확대간부들의 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확대간부 간담회와 수련회는 여전히 존재하는 지회간의 조직적 편차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지부는 9개월을 넘고 있는 한광호 열사 투쟁과 투쟁사업장의 승리를 위해 지부 공동투쟁도 강화하기로 했다. 2년차에는 반드시 모든 투쟁을 승리로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대의원들은 박근혜 퇴진 총파업 투쟁에 적극 복무하기로 결의하며 대회를 마쳤다.

이 날, 대의원들은 대대에 앞서 사전대회로 코스모축매 임단투 승리 지부 확대간부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임단협 일괄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코스모축매 자본에게 지부 집중투쟁 사업장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 이번주 일정 *

■ 열사 양재동 농성

일시 : 12/13(화) ~ 14(수)

장소 : 양재동 현대차본사

■ 시국 촛불집회

12/14(수) 18:30 청주 성안길

12/14(목) 19:00 대전 타임월드

■ 공단 집중선전전

12/15(목) 06:30 청주 성모병원

12/15(목) 07:00 음성 Y&T파워텍

12/15(목) 07:00 대전 한국타이어